

한전공대, 학교법인 인가 언제쯤?

한전 9월30일 인가 신청...교육부 3개월내 결정해야

인가 결정시한 1주일 남아...캠퍼스 설계발주 등 준비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첫 단추인 학교법인 인가 결정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 9월30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냈지만 22일 현재까지 인가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가부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인가결정이 미뤄진 데는 교육부 내부에서 학교법인 인가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20일 '2019년도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학교법인 한전공대 인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가 열렸는지 여부나, 한전공대 학교법인 인가건을 논의했는지 여부조차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상태다.

비록 한전공대 설립이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여전히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교육부 내부에서도 학교법인 인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로 풀이된다.

한전은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이사 7명·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했다.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인가결정이 나오면 한전공대 측은 인가를 낸 3개월 안에 이행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설립 등기서류, 재산확보명세서 등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 비로소 학교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학교법인 설립인가와 관련해 한전의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관계자

는 22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설립 주체인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과 함께 캠퍼스 설계발주 등 개교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명(대학원 60명·학부 4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며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 부지에 조성된다.

학교법인 인가가 나오고 이사회가 공식 출범하면 이사회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게 된다.

'대학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총장후보자가 위원장직을 맡고 교수·임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대학설립 인가, 캠퍼스 건설 등 개교 준비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역할을 맡는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광주만들기 추진본부 출범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광주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참석위원들, 시청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9년 만에 전철화' 경전선 광주~순천 노선 어떻게?

노선개량 통해 직선화...나주혁신도시 연결

개통 89년 만에 노선개량과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는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의 노선이 새롭게 바뀐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의 개량 및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88, 종합평가(AHP)는 0.653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광주에서 광주송정을 거쳐, 나주, 화순, 보성, 순천을 잇는 경전선은 기존선 48.7km를 활용해 모두 122.2km 구간에 1조7703억을 투입해 전철화 사업을 실시한다.

노선개량과 전철화가 진행되면 기존의 경전선 노선에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진다.

우선 경전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지점은 현재 광주송정역에서 목포

방향인 나주 노안 쪽으로 이동한다.

광주송정에서 서광주, 화순, 보성으로 이어지던 기존 노선도 광주송정, 나주혁신도시, 화순 이양, 보성으로 연결하는 직선형태로 개량한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나주혁신도시에서 전철을 타고 광주송정역을 경유해 광주역까지 이동이 가능해지고, 나주혁신도시에서 부산, 경남 등지로 연결하는 교통신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허성은 기자**

올 전남도정 최대 뉴스 '한전공대 유치'

전남도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전남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07명 중 405명(28.8%)이 '한전공대 유치'를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올 한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38개 주요 뉴스에 대해 10개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5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됐다.

한전공대 유치가 이어 2위는 378명(26.9%)이 응답한 '새천년 전남의 미래발전 비전, 블루이코노미 시대 개막'이, 3위는 352명(25%)이 지지한 '전남도 2020년 국고, 사상 최초 7조원 돌파'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대한민국 신성장축, 전남도 2019년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서 2등급 수직상승,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섬의 날 섬 페스티벌에 15만여명 몰려 성황,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40개 기업 돌파, 국제농업박람회 관람객 51만명 대박,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전국 1위 등이 차례로 10대 뉴스에 올랐다.

동구, 총장로 상가활성화 성과보고회 개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사)총장상인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성과보고회를 오는 23일에 갖는다고 밝혔다.

(사)총장상인회(회장 여근수)는 지난 6월 동구 '골목재생 로컬랩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홀몰로 남아있던 총장로5가 '도깨비골목'에 보도와 담벽을 깨끗이 정비하고 방문객과 상인들을 위한 쉼터와 정원, 산책길을 조성했다. 또한 7월부터는 총장로4·5가에서 직종변경 없이 30년 이상 운영한 전병원 양복점, 아씨주당 등 100개 상가의 연혁 등을 소개한 동판을 제작, 상가 앞 보도에 설치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마음터치 인심하우스 만들기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3회에 걸쳐 관내 저장강박증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2세대를 대상으로 집안에 가득찬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 및 싱크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진행됐다.

양동에서는 100리터 쓰레기 봉투 120여개의 생활폐기물과 고장난 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해 5톤 청소차의 지원이 있었으며,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다. 또, 상무2동 아파트에서는 2차에 걸쳐 2.5톤, 5톤 청소차의 지원이 있었으며, 해병대 서부지원회 및 상무2동 동지원봉사캠프, 자원봉사자, 주민센터 직원 약 60여명이 참여해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도배와 싱크대 교환 등을 실시했다.

남구 "내년 상반기 75명에 일자리 제공합니다"

광주 남구는 2020년 상반기에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구는 내년도 상반기에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안내 및 관리를 비롯해 재해 예방사업, 보행환경 정비, 푸른길 도서관 및 청소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북구, 지역별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빅데이터 분석

광주 북구가 "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발굴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개년 의료이용지표와 연구자료(2014년~2018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동별 ▲건강관리 수준 ▲만성질환현황 ▲치매현황 ▲사업장별 건강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건강관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기준 북구의 건강관리 수준은 양호하나 분석의 근거가 되는 세부 5종의 지표 중 대사증후군 발견율과 복부 비만율이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구, 실외 미세먼지 저감 포럼 개최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리빙랩 기반 실외 미세먼지 저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광산구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과제 중 하나,

사업 참여 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와 시민 등 120여명은, 포럼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지역민 삶의 질 개선, 공기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숙고했다. 포럼의 문은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열었다. 성 위원은 '시민주도형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리빙랩 사례와 과제'를, 박 교수는 '미세먼지 종합 진단 기술'을 발표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 357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준호(691026-1655414)
최 후 주 소 : 나주 남평읍 지석로 153, 103동 206호

위 망 김준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2월 23일

공 고 인 : 김천식, 김천숙, 김천홍, 김철기, 김준기, 김성현.
주 소 :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46-13, 101동 804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1월 14일
공고기간: 2019. 12. 23~ 2020. 2. 23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최규영[1958. 11. 11.생, 2019. 07. 20. 사망, 최후주소 광주 남구 금화로 456번길 4, 403호(월산동)]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9. 09. 23.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 149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1. 13.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 1490상속한정승인
공고인: 홍영순
광주 남구 금화로456번길 4, 403호(월산동)
한정승인수리일: 2019. 11. 13.
공고기간: 2019. 12. 23.부터 2020. 02. 24. 까지(2개월 이상)
신고 장소: 광주 동구 자산로 71-1(자산동) 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062-236-1255, 1257
2019. 12. 23.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